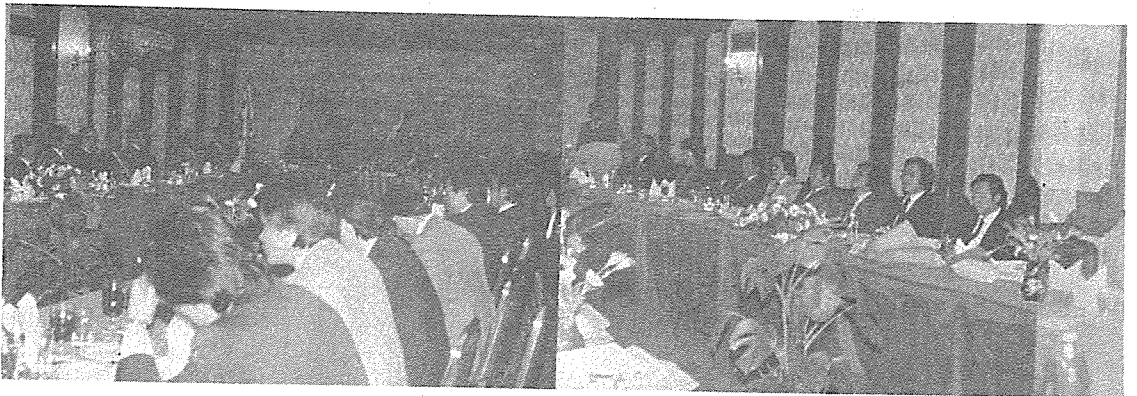


市道支部長會議 會費納付實績不振, 最大 當面課題로 規定等 未洽할때는 定款改正 해서라도 納付促求, 會費不振속 各種事業 能動的으로 推進.



치협은 지난 12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전국 시·도 지부장 회의를 열었다.

81년도 會期 3분지 2를 넘긴 지난 연말까지 齒協年會費납부율이 당초예산의 53%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자 고질적인 연회비 납부의 부진을 타개키위한 각종 개선방향과 미납회원의 제재조치방안이 강력히 거론되고있다.

구랍 12일 열린 전국지부장 회의에서는 부진한 연회비 납부의 타개방안이 오랜시간 설왕설래, 이에대한 다각적인 측면이 우선의제로 검토됐는데 대부분 지부장들은 齒協의 현안과제중 최대 당면문제는 「연회비납부」관계라고 강조하고 어떠한 방법이던 하루 빨리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그냥 말로나 토의로만 미진하게 끝나는 연례적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정관이나 규정의 원리원칙 준수를 강력히 추진토록 촉구했다.

각 시·도지부 회비 납부실적은 다음과 같다(81. 12 현재).

△ 서울.....26,612,500원(40%)	△ 전남..... 3,530,000원(93%)
△ 부산..... 5,630,000원(46%)	△ 경북..... 6,120,000원(52%)
△ 경기.....10,040,000원(105%)	△ 경남..... 2,010,000원(33%)
△ 강원..... 2,710,000원(100%)	△ 제주..... 850,000원(131%)
△ 충북..... 2,150,000원(92%)	△ 군진..... 3,300,000원(54%)
△ 충남..... 5,100,000원(93%)	△ 공적..... 2,900,000원(33%)
△ 전북..... 1,980,000원(80%)	